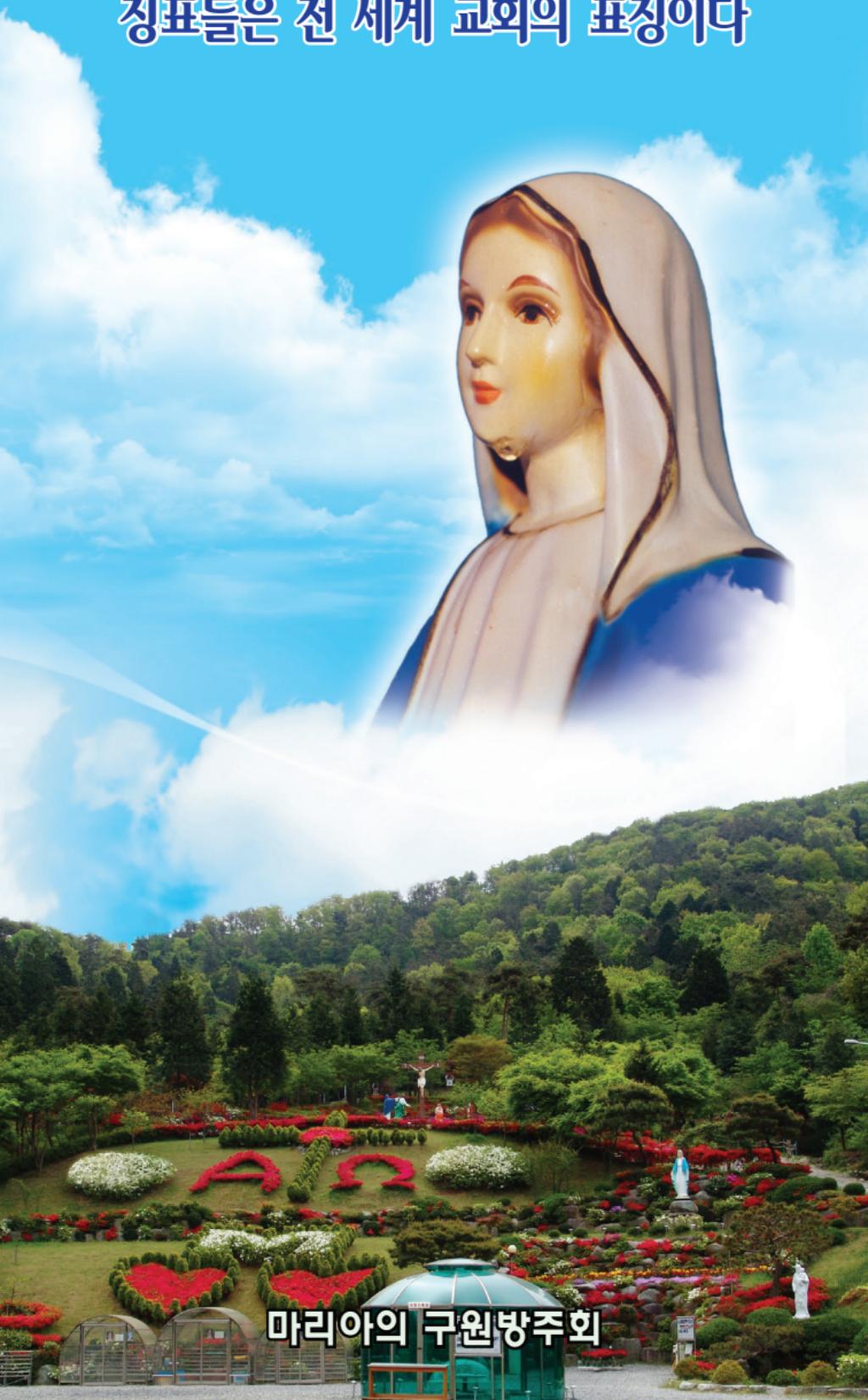


나주의 진실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일어나는
징표들은 전 세계 교회의 표징이다



마리아의 구원방주회



18~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은 놀라운 기술혁신으로 물질문명을 고도화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와 비례하여 세상 죄악 또한 커져가 사람들은 타락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단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성모님께서는 19~20세기에 세계 각처에서 발현하여 눈물로 호소해 오셨다.

그리고 1985년 6월 30일 한국 나주에서도 율리아 자매가 모시던 성모상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발현하셨다. 성모님은 세상 자녀들의 회개를 위해 당신의 현존과 사랑과 우정의 징표인 향유를 흘려주셨다. 주님 역시 1988년부터 지금까지 33번의 성체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성모님의 나주 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성모님은 이런 기적과 징표보다 사랑의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다. 나주성모님 사랑의 메시지 핵심은 회개와 생활개선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천국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외 수많은 순례자들이 영적, 육적으로 치유를 받아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과 성모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징표와 기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관할교구인 광주대교구에서는 주령 주령 열린 열매들은 물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목격한 성체기적에 대한 조사조차 외면하고, 나주성모님을 이단으로 몰고 가고 있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발현에 대한 교황청의 판정 유형 세 가지

1.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 현상으로 확정한다 – 파티마, 루르드, 일본 아끼다 등
2.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한다(이단) – 베이사이드
3.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조사 중, 판단 유보) – 나주

밝혀진 나주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입장

광주대교구는 1차 공지문에서 나주에 대해 교황청과 협의한 ‘Non constat ~’를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의 의미로 둔갑시켜 나주를 이단으로 단죄했다. 그러나 나주순례를 통해 회개하고 은총을 받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자 2~3차 공지문을 내고, 급기야 2008. 1. 교령을 발표했다.

그래도 나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2009. 2. 24. ‘광주대교구 입장문(2)’를 발표하며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2008.4.24.자 공문(문서번호112/1993-27066)을 나주 단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런데 그 문서는 나주를 단죄한 것이 아니라 “나주는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발현에 대한 판단은 신앙교리성의 고유권한임을 강조했다. 광주대교구는 윤공희 대주교 때부터 지금까지 나주를 이단으로 단죄하고 싶어 했지만 교황청은 그 시도를 번번이 무산시켰고, 나주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은 2011.3. 신앙교리성 장관이 김희중 대주교에게 보낸 공문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런 사실들은 교황청은 이미 나주에 발현하신 성모님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기적에 대한 교황청과 광주대교구 반응

■ 주한 교황대사 불라이티스 대주교는 94. 11. 24. 교황의 대리자로서 나주를 공식 방문 중에 목격한 성체강림기적을 교황청에 즉각 보고했다.



강림하신 성체를
관찰하는 교황대사

광주대교구는 그제야 ‘나주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5. 1. 9. 첫 회의를 했다. 그리고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만인 6. 16. 부정적인 발표로 신자들이 나주 순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요한 바오로 2세는 개인비서인 투 몬시뇰을 95. 9. 나주에 보내 10월에 율리아 자매를 바티칸으로 초청했다. 그러나 광주대교구는 98. 1. 1. 공지문을 통해 “성체가 입안에서 살덩어리와 피로 바뀌는 현상(성체기적)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며 나주를 단죄함으로써 교회가 인정한 모든 ‘성체기적’을 다 부정했다. 광주 공지문에 따르면 ‘볼세냐의 성체기적’을 받아들이고 ‘성체찬미가’와 ‘성체성혈대축일’을 제정한 우르바노 4세 교황도 이단에 해당된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가르침인가?

- **광주대교구 나주 조사위원회 주장 :** 3년 동안 과학적으로 주의 깊게 연구, 관찰하고 신앙적 검토와 현상적 검증 작업 및 현장조사 실시.
- **그러나 실제는**

과학적 조사 : 없음	현장 조사 : 없음
성체기적 목격자인 요한 바오로 2세 및 중요 성직자들과 목격증인 인터뷰	하지 않음
율리아 자매와 단 한 번의 면담 때 질문내용	
<p>“성모님이 말씀하시려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추워서 어떻게 내려오실 수 있나?”</p> <p>“신학적으로봐서 성부는 말씀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은 말씀 하실수 있었지만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조사위원장 김재영신부)</p>	

이는 신성모독으로써 조사위원장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와 부활까지 부정하는 신학관을 피력했다.



△ 8세기, 이태리 란치아노에서 일어난 가톨릭교회의 첫 번째 성체기적. 가톨릭교회는 1970년대에 이 성체성 혈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이며 혈액형은 AB형임을 확인.

그렇다면 나주 순례자가 파문인가? 전세계 성체기적을 부정한 광주대교구 조사위원회 성직자들이 파문인가? 이에 대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트리엔트 공의회와 교회법은 아래와 같이 가르친다.

“형태, 색깔, 기타의 외양이 변하여, 살이나 피로 보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성체기적)은 기만(속임)이 아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현상을 통하여 성체성사안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신학대전 3부, #76, 8항)

- 만일 누구든지 신성하고 거룩한 성체 성사 안에 빵과 포도주의 실체(substance)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함께 남아 있다라고 말하며, 빵과 포도주의 외양만 그대로 남아 있고 <빵의 실체 전부>가 살로 변하며, <포도주의 실체 전부>가 피로 변하는 이 훌륭하고도 유일무이한 변화, 즉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적합하게 <실체변화>라고 부르는 이 변화를 부인한다면 저주받을지어다.

– 트리엔트 공의회(DS 1652) –

- 성직자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할 때, 그들은 자동으로 파문된다. (교회법 제1364조 1항, 제1336조 1항)

■ 광주대교구의 2, 3차 공지문과 교령

광주대교구 1차 공지문 발표 후, 국내외 신학자들과

신자들은 공지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왜곡 시킨 성체교리를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성체교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가톨릭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인데, 최창무 대주교는 2차(2001. 5.) 와 3차(2005. 5.) 공지문을 발표했다. 이에 교황청은 2007년 12월, 바티칸을 찾은 최 대주교와 한국주교단에게 “왜 나주를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귀국한 최 대주교는 나주에 대해 유연해진 듯하다 2008. 1. 21. 교령을 발표했다.

■ 장홍빈 신부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면담

장홍빈 신부는 즉각 최 대주교에게 ‘잘못된 교령’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해제하여 줄 것을 청원했으나 거절당했다. 장 신부는 청원서를 가지고 바티칸으로 향했고,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 추기경은 시간을 내어 장 신부를 면담했다.

■ 인류복음화성 장관, 한국 주교단에 공문

“나주는 사적계시로 간주되므로 나주 순례자들을 제재 할 수 없으며 장홍빈 신부님에게 가한 제재도 풀어줘야 되고 장 신부님은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반디아스 추기경은 즉각 위와 같은 공문을 한국 주교단과 광주대교구에 보냈다. 이에 광주대교구는 ‘나주문제는 신앙교리성이 주관한다.’고 주장했다. 교황청은 협의 후 ‘신앙교리성에서 나주문제를 정식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신앙교리성은 2008. 4. 24. 광주대교구에 공문을 보냈다. 주된 내용은 앞에서 밝힌 대로 “나주는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최 대주교는 2008. 7. 2. 나주를 방문하여 경당에서 기도하는 순례자들에게 다가가 활짝 웃으며 “주교가 기도하는 것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은총 많이 받으세요. 성령도요.”하는 덕담을 하고 떠났다.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순례자도 최 대주교의 교령에 의해 자동파문 된 사람은 없었다.

순명과 재산 문제에 대한 진실

■ '교구장의 명에 순명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 공지문에 순명하기 위한 율리아 자매의 노력 :

1차 공지문이 나온 뒤, 율리아 자매는 7년간 다락방에서 숨어지내며, 주일을 지키고 교무금도 성실하게 납부했다. 나주 기도회는 순례자들이 자체로 진행했다.

▶ 최창무 대주교가 교구장이 된 후, 2001년 나주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송홍철 신부가 율리아 자매에게 요구한 전제조건(2001년 6월) :

- ① 눈물 흘리신 성모님상을 반납하고,
- ② 성모님 집과 성모님 동산도 폐쇄하고,
- ③ 교중 미사 때 신자들 앞에서 "15년간 눈물과 피눈물, 향유, 성체기적, 메시지 등 모든 것이 조작이고 거짓이었다."고 고백하고 용서청하면 교회에서 받아주겠다 함.

→ 율리아 자매가 단지 성당에 나가기 위해, 주님과 성모님을 배반하면서까지 거짓증언을 해야 하는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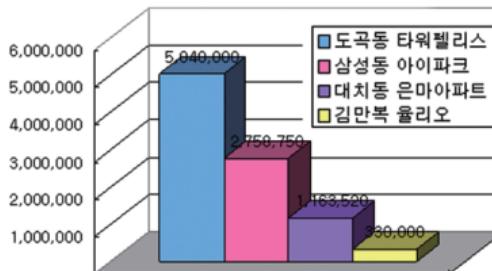
많은 이들이 순명에 관하여 크게 잘못 알고 있다. 그들은 비록 장상의 명령이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날지라도 이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장상들은 하느님의 계명들에 어긋나는 것을 명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아랫사람들은 이를 따를 의무도 없다. 아니, 만일 그들이 이러한 명령을 따른다면 죄를 짓는 것이 된다.

■ 나주가 재산을 축적한다?

성모님 집과 개인의 토지, 건물 모두 김 율리오 회장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1

년 재산세가 약 33 만원이다. 이는 광주의 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재산세 비교 그래프



■ 율리아 자매는 어떤 사람인가?



이름 없는 들꽃처럼 숨어 살기를 원하는 이 분은 “제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어서 빨리 주님과 성모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실천하고 회개하여 주님과 성모님의 찢긴 성심을 기워드리고 5대영성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날 천국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며 세상구원을 위한 주님과 성모님의 극심한 고통에 늘 기쁘게 동참하는, 하느님께서 간택한 작은 영혼이다.



십자가 오상고통, 편태와 가시관 고통, 성심이 찢기는 고통, 연옥과 지옥불 고통, 낙태보속 고통, 마귀공격, 순교자 치명고통, 모령성체 고통, 음란 보속 고통 등등



그녀는 멀망을 향해 치닫는 세상 죄악을 보속하기 위한 극심한 고통을 밤새 몸부림하며 봉헌하다 새벽 6시쯤 겨우 잠들어 9시에

일어났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으시는 능욕을 기워 갚고자 그 3시간마저 봉헌하고 새벽 6시면 성모님동산에 올라가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다.



리카르도 박사는 그녀의 뇌파검사를 하기로 했다. 뇌파에는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4가지가 있다. 델타파는 초자연적인 탈혼 상태나 신생아 때 잠깐씩 나타나므로 델타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시현자가 참인지 아닌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한다.

율리아 자매는 어수선한 곳에서 뇌파검사를 했는데도 델타파가 3개까지 나타났다. 검사를 진행한 리카르도 박사는 설명이 불가능한 초자연적 현상이라며 기쁨에 차 “이제 세상 그 누구도 율리아 자매님을 정신 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하고 외쳤다.

■ 작은 영혼의 삶을 통해 완성된 나주성모님 5대 영성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5대 영성을 받아들여 꾸준히 실천한다면 학력이나 지식과 상관없이 성덕이 태동되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 완덕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모든 죄에 대한 보속을 현세에서 다 할 수 있게 도와주기에 주님과 성모님은 세상 모든 자녀가 이 영성을 흡수처럼 실천하여 겸손한 작은 영혼으로 천국에 오르기를 바라신다.

1. 아멘 :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하신 성모님의 겸손이 잘 드러나는 아멘의 영성은 주님과 성모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고 결과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 261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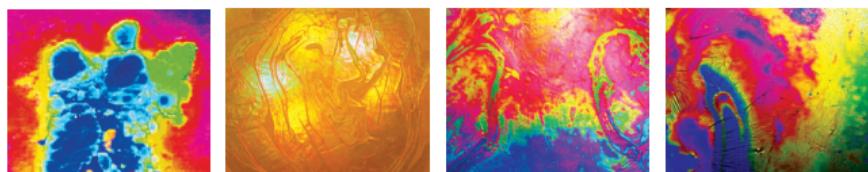
2. 내 탓이오 : 가만히 서 있거나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맞아 피가 흘러도 그 시간에 그 곳에 있었던 내 탓으로 여기는 영성이다. (님 향한 사랑의 길 264쪽 참조)

3. 생활의 기도화 :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사소하고 하찮은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승화시켜 아름답게 봉헌하는 기도다. 그리고 지나간 일들도 생각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성덕을 태동시켜 연옥에서 받아야 할 보속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완덕에 도달케 한다. (님 향한 사랑의 길 21쪽 참조)

4. 봉헌의 삶 : 어떤 일을 참고 인내하기만 하면 원망과 한이 그대로 가슴에 응어리로 남게 되어 진정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지만,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여 자신의 기쁨과 슬픔과 약함 까지도 아름다운 기도로 승화하여 하느님 대전에 바쳐드린다면 어떤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늘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결국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님 향한 사랑의 길 47쪽 참조)

5. 셈치고 : 하고자 한 것을 못할 때 한 셈치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 먹은 셈치고, 예쁜 옷을 사고 싶으나 돈이 없어 못 살 때 좋은 옷 입은 셈치고,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조차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셈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웃이 화평하기만을 바라며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봉헌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의 기도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삶 목차 36번 참조)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은 2000년 10월 7일, 율리아 자매에게 매우 아름다운 문양들이 나타나는 특별한 징표를 주셨다. 남편인 율리오 회장은 율신액(율리아의 신장에서 나온 액체)이라고 명명하였는데, 전 세계 발현을 조사함에 있어 교황청에서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볼리비아의 리카르도 박사는 “정말 신비롭다. 율리아 자매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보속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깨끗이 정화되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율신액에 나타난 다양하고 신비한 모습들

이 징표에 대해 성모님은 2002. 1. 1.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너의 주님께서 이 엄마와 함께 네 안에서 활동하고 생활하면서 일치하고 있다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징표 란다.”라고 알려주셨다.

▷ 주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현상은 나주 협력자들에 의해 교황청에 보고되었으며, 율신액 사진이나 율신액 스카프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났다. 그중 케냐의 한 자매는 율신액 스카프를 몸에 댄 후 에이즈를 치유 받았다고 소식을 전해왔다. 이 신비를 밝히는 일은 교회 신비신학자들의 뜻일 것이다.

나주에 대한 교황청의 긍정적인 입장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주한교황대사의 나주 보고서를 검토한 교황은 95. 9. 18. 가장 신임하는 개인비서 몬시뇰 빈센트 투를 나주에 보내 “교황님께서는 ‘나는 나주 성모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한 고통을 받고 메시지를 받아 전하는 율리아 자매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율리아 자매에게 꼭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교황과 매일 식사를 같이 하는 빈센트 투 몬시뇰



율리아 자매가 영한 성체가 살과 피로 변화되어 부풀어 나면서 성심 모양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 하며 강복하는 교황

율리아 자매는 95. 10. 31. 바티칸의 교황 개인 소성당에 초청되어 교황께서 집전하는 미사에 참례했다. 미사 중 율리아 자매가 영한 성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성체기적이 일어났다. 교황은 그 모습에 깜짝 놀라며 강복을 주고, 그 뺨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고 고향의 가족들에게까지 강복해 주었다.



△ 2001. 3. 교황은 이 성체기적을 교회의 인준을 받은 성체기적들과 함께 ‘오상의 비오 신부 기념 성당’에 전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태리어로 “교황님은 95. 10. 31. 율리아자매를 통해 일어난 초자연적인 성체기적의 주요 목격자 중 한 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1. 5. 19. 가톨릭TV를 통해 처음으로 이태리 전역에 방송된 ‘나주 성체기적’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방영됐다. 바티칸 소식통들은 “살아 계신 교황과 관련된 성체기적 전시와 방영은 교황청의 허락 없이는 불 가능하다.”고 전하였다.



<http://www.youtube.com> 유튜브 검색어: miracoli naju △

“나도 율리아 자매를 통해 성체기적을 목격했다. 이 훌륭한 은총을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십시오.”

■ 2014. 4. 27. 요한 바오로 2세 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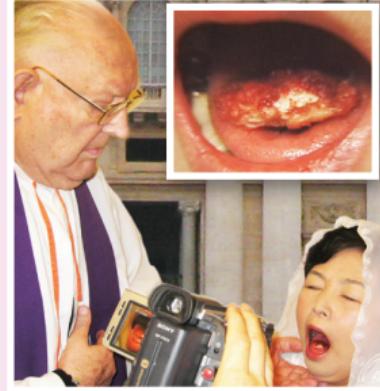
가톨릭의 시성조사는 매우 엄격해, 대상자가 거짓 발현을 믿었다면 큰 결격사유가 된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시성된 것은 교황청도 나주성모님 발현을 믿는다는 뜻이다.

■ 조반니 블라이티스 주한 교황대사



△ 1994. 11. 24. 나주 공식 방문시 경당성체강림기적 증인

“이 성체기적은 바티칸의 교황청 공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그 분별에 대한 관할권은 오로지 교황님과 교황청에만 있다. 광주대교구나 세계 그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관여할 권한이 없다.”



2010. 2. 28. 바티칸 공관에서 미사 중 성체 기적 증인 △

■ 베네딕토 16세 교황



2006. 10. 16. 성체기적

이반 디아스 추기경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을 3월 8일 만나 2010. 2. 28.의 성체 기적을 직접 자세히 보고했으며, 11일에는 2006. 10. 16. 성혈이 흘러나온 나주의 ‘기적의 성체’를 베네딕토 16

세 교황에게 전했다. 이 기적의 성체를 한참 바라보며 묵상하던 교황은 비서실에 “잘 보관하라.”고 지시했고, 4월 20일 이반 디아스 추기경에게 “I am favorable on Naju.” “나는 나주에 대해 긍정입니다.” “나는 나주에 대해 호의적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조반니 블라이티스 대주교의 증언)

■ 교황청 인류 복음화성 장관 이반디아스 추기경

주한 교황대사 시절 나주 성모님을 잘 받아들였으며 알바니아 교황대사로 부임 해선 율리아 자매에게 ‘알바니아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뢰.



나주성모님 팜프렛을 읽고 있음



2007.12. 사도좌정기방문 회의 때 한국 주교단에게 “왜 나주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받아들이십시오.” 강하게 질책하는 이반디아스 추기경.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는 고위 성직자들

- 필리핀 하이메 신 추기경 - 메시지를 필리핀 전역에 전파하도록 허락하고 나주성모님 적극지지



- 말레이시아 도미니꼬 수 주교 - 나주 성모님동산과 말레이시아 시부교구 주교좌 성당에서 성체기적 목격 후 목격한 시부교구 성체기적 인준



- 인도 스티븐 주교 - 주교직을 사임하려다 마지막 순간 나주 순례를 통해(2013.5.16) 은총을 받아 현재까지 교구장직을 잘 수행



- 캐나다 로만 달렉 주교 - 성모님동산 미사 집전 중 성체기적 목격, 캐나다로 오면 나주성모님 인준 약속



- 원주교구장 지학순 다니엘 주교 - “나는 확실히 보았고 굳이 믿습니다.” 증언, 500이던 당뇨수치 100으로 치유



- 인천교구장 나 굴리엘모 주교 - “나주 성모님 메시지는 성경의 해설서와 같다.”



끝없는 사랑의 열매가 주령주령

나주처럼 은총이 많은 곳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성모님상이 처음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부터 26~27번 정도 순례를 했습니다. 성모님 눈물, 피눈물, 성체기적, 향유와 성혈, 태양의 기적, 율리아님의 고통 등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다른 발현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나주처럼 은총이 많은 곳은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광주대교구는 이런 진실을 받아들여 기도하려 오는 사람들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 루이 보스만스 신부, 2009. 10. 19)

골수까지 퍼진 암이 치유되었어요



전립선암이 온몸과 골수까지 다 퍼져 여섯이 부축해야 할 인도네시아 프레드 신부는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나주나 한번 다녀오자.’며 2006년 성주간 때 순례왔다. 그토록 아픈 병자가 성 금요일 십자가의 길에서는 율리아 자매를 부축해 주었다. 본당에 돌아가 또 고통이 오자 율리아 자매가 선물한 은총 묵주로 기도를 계속하고는 완전히 치유 받아 다시 순례왔다.

사제생활 53년 동안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고통을 마마쥬리아를 통해 체험했기에 지금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 금요일 날 Julia가 가시관 고통으로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다리와 온몸에 말할 수 없는 편태 고통을 받는데도 울부짖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극심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53년의 사제 생활 동안 유럽이나 다른 곳의 수많은 성지를 방문해봤지만 나주 같은 성지는 없었습니다.

(인도 요셉 마자렐로 신부, 2011. 4. 증언 참조)

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도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적 중 일부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에는 율리아 자매님에 대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3월에 율리아 자매님이 다녀 가신 후 시각 장애아들, 청각 장애아들이 치

유된 것을 직접 보았으며, 거기 담당수녀님도 그들이 치유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곳에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돈도 없기에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율리아 자매님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가던 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아르두스 제하우트 신부, 2007. 6. 30)

살아 계신 하느님의 도성입니다



이곳 나주는 시온 산이고 하느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 있고,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주를 부정적으로 말하며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믿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듯 하느님에게 온 것은 박해를 통해 정화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초라한 비닐 성전이지만 언젠가 큰 대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푼데스 모티옹 신부, 2007. 9. 1. 증언 참조)

새로 서품 받은 느낌입니다



금년 성주간은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주에 와서 율리아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그 중 고통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나주에 오기 전 저는 너무 힘들어 주교직을 사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의 기분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나주에 와서 저를 다시 봉헌하고 새로 서품 받은 느낌입니다. 율리아 자매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자매님은 말씀을 통해 제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인도 스티븐 렙차 주교, 2013. 5. 증언 참조)

편태고통에서 흘러나온 피로 전립선암 치유



저는 전립선암으로 소변을 볼 수가 없고 피만 나와 팬티는 항상 피와 진물로 젖어있었습니다. 성 금요일 Julia가 편태고통 때 흘린 피묻은 손수건을 선물 받아 팬티 속에 넣었는데 다음날 손수건이 피로 흠뻑 젖었고 팬티는 깨끗했어요.

그때부터 정상적인 소변을 잘 볼 수가 있었고, 더 이상 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엄청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알로이시우스 신부, 2010. 4. 4. 증언 참조)

아멘으로 응답해 대장암 치유



1998년, 3억이나 되는 빚과 아이들을 남긴 채 남편이 가출한 뒤, 설상가상 전남대와 서울대 병원에서 대장의 가로결장과 소장간막에 직경 3cm 두개와 2cm짜리 악성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자성사를 받고 임종 준비를 하면서 진통제로 연명하다 나주에 와 기도하며 율리아님의 말씀을 듣자 잘못 살아온 삶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교만을 깨닫고 한없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장미향기가 진동하여 아멘으로 응답하자 통증이 사라졌다.

수술 날,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악성종양 3개가 다 사라졌다. 의사들도 이 놀라운 기적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재도 서울대 병원에서 괜찮냐고 연락이 온다. 그동안 율리아님의 영성따라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 남편 빚 다 갚고, 자녀들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병든 가정을 위해 보속하는 마음으로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까지 기쁘게 돌보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축복기도까지 해주며 감사할 뿐이다.

(이양님 유틸리안나 2006. 6. 30. 증언참조)

3cm 이상 짧았던 다리가 길어났어요



저는 5살 때 오른쪽 다리 정강이 뼈 세군데가 부러져 중학교 1학년 말에는 성장이 느린 원발이 3cm 정도 더 짧아 왼쪽어깨도 빼뚤어졌어요. 몸이 빼뚤어지니 마음도 빼뚤어졌는데 유틸리아님과의 만남 때 왼쪽 무릎에서 맥박이 툭툭, 두 두둑하면서 강하게 튀는 상태가 십여 분간 지속된 후 짧았던 왼쪽 다리가 길어나 정상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빼뚤어졌던 등판과 아팠던 척추도 정상이 되니 빼뚤어져가던 마음도 치유되었고, X-Ray상에도 다리뼈 길이가 똑같아졌어요.

(김한길 대전안드레아)

가족을 버린 남편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사랑



술로 모든걸 다 날리고 집 나간 남편 대신 돈을 벌어야 했기에 나주에 오기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 유틸리아님의 낙태보속고통 영상을 보고 나주에 왔어요. 만남 때 유틸리아님을 만나자마자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없던 제 눈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친엄마도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나주 순례 후 생활의 기도를 바치면서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해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남편과

연락됐는데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라.” 는 율리아님 말씀에 힘입어 “나를 만나고 싶으면 나주에 가자.” 해서 나주에 같이 왔더니 그때부터 회개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은 아니니 예수님으로 받아들여 같이 살자.” 고 설득해서 애들도 아빠를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날부터 다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나주에 갔다 올 때마다 변화돼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일하면서도 술도 안 먹고 가족을 위해 요리도 해줍니다. 저는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금은 그런 배필을 주신 주님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성모님동산에서 봉사하는 게 소원입니다.

(김옥금 아녜스 2014. 11. 24. 증언참조)

■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은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건설업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는데 보증을 섰던 다른 건설사가 IMF 여파로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연쇄부도를 막으려고 전 재산을 부인 앞으로 이전하고 위장이혼을 했어요. 하루는 6명이 술 먹자고 저를 찾아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때리고 목 졸라 죽였어요. 요행히 병원에 옮겨져 살았는데 처와 애들은 이미 집과 재산을 완전히 정리해 사라졌고, 저는 돈이 없어 수술도 못하고 갈데가 없어 한겨울에 하우스에서 지내면서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주 순례자가 준 “님 향한 사랑의 길” 책을 읽고 너무 놀라워 6월 30일, 나주에 순례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만남 때 율리아님이 사랑한다며 안아주시는데 그렇게 포근했고 눈물이 났어요. 성모님동산에서 샤워하고 기적 수 먹고, 만남하면서 망가졌던 몸도 완치됐는데 율리아님은 죽도록 미운 사람 용서하라 하시죠? 왜? 그들 때문에 나주 와서 회개하고 은총을 받았으니 그들이 은인이잖아요. 전엔 항상 복수심에 불탔는데 율리아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지금은 다 용서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손진필 바오로 2013. 4. 6. 증언참조)

■ 율리아님이 없었으면 더 이상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Julia의 기도를 통해서 걷지 못했던 다리를 치유 받은 폐피토 입니다. 나주에서 발현하신 주님과 성모님, 율리아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생 증언 검색: 필리핀 폐피토 증언/ www.youtube.com)



13년 된 희귀 난치병, 피부암까지 치유받았습니다



남편은 21년 전 교통사고로 계속 앓아있어야 했기에 욕창인 줄 알았던 게 세계에서 하나 있는 희귀난치병 피부암이었어요. 병원가서 째면 고름이 나오고 까매지는데 퇴원하면 낫기도전에 금방 심해져 입원해야 하는 고생을 13년했어요. 그러다 작년 7월 첫째 때 율리아님께 기도 받고는 깨끗해졌어요.

저도 오른쪽 귀에서 피가 줄줄 나오면서 너무 아파 대구 큰 병원에 가니 수술 하자면서 고막을 찢고 수술해도 재발이 잘 된대요. 저는 고름이 나오는 귀에 기적수를 계속 넣고 1주일 뒤에 갔더니 의사가 깨끗하게 나았다고 놀라요. 또 천식과 심장도 안 좋으니 빨리 입원하라는데 그냥 집에서 기적수를 바르고 먹었더니 무거운 것 절대 들지 말라고 한 무릎 관절까지 모두 깨끗이 치유됐어요. 또 양쪽 눈 옆에 멍울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눈도 안 보이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너무 늦게 왔다고 했는데, 율리아님이 눈에 뾰루를 해주신 뒤로 깨끗하게 나았어요.

(한계옥 엘리사벳 2014.11 중언참조)

갈비뼈도 불고 폐에 구멍난 고통도 사라졌다



인도네시아 위니 자매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없었는데 2009년 성금요일 성모님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하다가 지팡이를 던져버렸다. 2010년에는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찔러 놔까지 산소를 공급할 수 없는 정도였고, 골다공증으로 뼈 또한 잘 불지 않아 의사도 포기한 상태였으나 율리아 자매에게 받은 은총의 묵주를 가지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기도하였는데 갈비뼈도 불고 폐에 구멍 난 고통도 사라졌다. (인도네시아 위니 2011년 4월 22일 중언)

의사들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 했어요



조카가 숨이 멎어 응급실에 갔는데 체온이 33도로 가족들도 포기했고 의사들도 절대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기적수를 몸에 발라주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깨어났어요. 의사들도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다.”고 했답니다.

(김유순 마리아 2013.5 중언참조)

나주를 통해 가톨릭교회로 개종 했습니다

2004년 나주 성모님을 알게 되어 제 평생 용서할 수 없었던 분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체 안의 예수님의 현존과

성모님의 현존을 깨닫게 돼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여동생도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개종 전 동
생은 임신이 안 돼 나주에서 구입한 은총목주로
기도를 했는데 예쁜아이를 주셨고 나주에 순례
다니면서 가슴에 있던 섬유선종도 치유 받았어요



(전혜원 릴리아나 2008. 증언참조)

의사인 오빠가 백혈병을 치유 받았어요



의사인 작은오빠가 작년에 백혈병에 걸렸는데
나주에서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치유받아 병원
에 출근하고 있어요. 의사인 큰오빠가 평평 울
면서 고맙다고하여 “오빠! 나주 성모님한테 감
사해야 돼.” 하면서 둘이 전화 불들고 울었어요. 의사인
큰오빠도 동생을 살릴 수가 없었는데 저로 인해 올케언니
가 나주에 순례하면서 둘째오빠가 살았다는 거죠.

(양순옥 베로니카 2015. 2 증언참조)

폐에 전이된 간암이 깨끗이 치유됐어요!



2010년 정밀검사를 하니 암이래요 작년 4월에 폐
에 전이가 됐다면서 수술은 못한다고 약을 줬는
데 석 달 있다가 가니 더 커졌대요 저는 기도회
때마다 울리아님께서 가슴에 뾰뽀해주시고 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성모님께서 치유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10
월에 검사 했더니 정말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최태분 라파엘라 2012. 2 증언참조)

줄리아 킴의 기도로 대장암을 치유받았어요



저는 2007년 2월부터 대장에 직경 3cm의 암이 생겼
는데 6번이나 수술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할
수도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나주를 가게 되었
어요. 줄리아가 저의 수술 부위에 뾰뽀해주며 기
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때 성모님의 향기와 함께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통증이 사라졌습니
다. 고국으로 돌아와 검진 결과 완전히 치유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 (인도네시아 안나 파울리나 2010년 증언)



기적수로 아버지의 후두암이 완전히 치유됐어요

하와이에서 온 요한입니다. 부친께서 후두암으
로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해서 아버지께 나주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기적수를 드렸는데 수술
없이 완전히 치유되어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2012. 12 증언참조)



나주 기도회 안내

매월 첫토요일

기도회 18:00~03:30, 십자가의 길 14:30

- 매월 셋째 목요일 성시간 19:30~23:30
- 매주 목요일 성시간 19:30~22:30
- 성삼일 기도회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성야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은 율리아님과 함께

기념일 기도회

1월 1일, 5월 16일, 6월 30일, 8월 15일,
10월 19일, 11월 24일, 12월 8일
십자가의 길 14:00 기도회 18:00~02:00

○ 나주 성모님의 집

전남 나주시 나주천 2길 12번지
우. 520-030

○ 전 화 : 061-334-5003

○ 팩 스 : 061-332-3372

○ 웹사이트 : www.najumary.or.kr

○ 이 메 일 : najumary@empas.com

마리아의 구원방주회